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요약

1. 신세계나사구더기 인체감염, 미국 New World screwworm in the USA

'25년 8월 미국에서 신세계나사구더기 인체감염 환자 1명 발생 보고

- '25년 8월 미국에서 신세계나사구더기(NWS) 인체감염 환자 1명 발생 보고(8.25.), 환자는 엘살바도르 여행력이 확인되었으며, 美CDC는 메릴랜드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시행함. 美농무부는 인근 가축을 대상으로 NWS에 대한 표적 감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모든 포획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남. 美보건부는 이번 사례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고 평가함
- 한편, 현재 중미지역에서는 소를 포함한 가축을 대상으로 NWS 감염이 발생 중으로 미국은 멕시코에서 가축 수입 중단 조치('25.5.11.), NWS 복상을 막기 위해 탐지, 방제 및 퇴치를 위한 전략을 공지('25.6.11., '25.8.15.)하여 강력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
 - ※ '23년 파나마에서 NWS가 급증하여 유행선언('23.7.3.) 이후 지난 2년간 파나마 북부로 확산되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멕시코까지 발생 보고 중
- 국내에서는 NWS 감염 환자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보고 없음. 중남미 지역(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마 등)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NWS 풍토병 지역에서 가축이 있는 곳 방문 자제, 방충망 있는 실내에서 취침, 혈령한 긴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 곤충에 물릴 수 있는 부위 최소화, 곤충 기피제 및 살충제(페르메트린 0.5% 함유) 사용, 개방된 상처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덮어두기

2. 엠폭스, 여러 국가 Mpox in Multi-country

'25년 7월 서태평양 지역에서 필리핀, 중국 엠폭스 발생 증가, 아프리카 국가 엠폭스 유행 지속 중으로 엠폭스 위험 국가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권고

- 아프리카 지역의 엠폭스 발생은 '25년 5월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7월에 필리핀, 중국의 확진자 수 증가로 전월 대비 160% 증가함
 - '25년 7월 전 세계 47개국에서 엠폭스 확진자 3,924명 발생(사망 30명, 치명률 0.8%) 보고,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되었으며 '25년 5월 정점 이후 감소 추세임

- 7월에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126명), 중국(152명)에서 확진자 수가 전월 대비 증가함. 세네갈의 첫 번째 엠폭스 발생이 보고됐고(8.23. 유입사례), 튀르키예에서도 Clade 1b 엠폭스 첫 번째 유입 사례(3명)를 보고함
- 국내에서 2형 엠폭스 환자는 '25년 8명(국내발생 7명, 해외유입 1명) 보고('25.9.1. 기준), 1형 엠폭스의 국내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속 유행 중으로 엠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을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

3. 동부말뇌염 인체감염, 캐나다 Eastern Equine Encephalitis (EEE) human infection in Canada

캐나다에서 '25년 동부말뇌염(EEE) 첫 사례 발생 보고

-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해밀턴 지역에서 '25년 첫 동부말뇌염(EEE) 인체감염 사례 1명이 보고됨. 해외 여행력이 없어서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환자 발생지역에서 말 EEE 감염도 확인되어 지역 내 바이러스 존재를 확인함
- 캐나다 보건당국은 EEE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긴 옷 착용, 거주지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지자체의 매개체 통제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밝힘
- 국내 동부말뇌염 발생 보고는 없으나, 국외 유행 지역 방문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필요

4. 살모넬라균 감염증, 미국 Salmonellosis in the USA

'25년 8월 미국 14개 주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자 총 95명 발생 보고

- '25년 8월 기준 미국 14개 주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총 95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중 18명은 입원치료를 받음(사망자 없음). 확진자가 보고된 14개 주 중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고하였으며, 전장 유전체 분석 결과 공통 감염원(계란)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됨. 추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통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시행함
 - 美CDC와 FDA는 ①해당 계란을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 ②해당 계란에 닿았을 수 있는 물건이나 표면은 뜨거운 비눗물이나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여 씻을 것, ③설사와 102°F(약 38.9°C)이상의 발열, 3일 이상 지속되는 설사가 호전되지 않을 시, 혈변, 탈수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함
- 국내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수는 최근 4주 '24년 대비 지속 증가하고 있음. 살모넬라균은 보통 계란 껍질 표면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함

1. 신세계나사구더기 인체감염, 미국 New World screwworm in the USA

발생 상황

'25년 8월 미국에서 신세계나사구더기(NWS) 인체감염 환자 1명 발생 보고(8.25.), 환자는 엘살바도르 여행력이 확인되었으며, 美CDC는 메릴랜드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시행함

- '25년 8월 미국에서 신세계나사구더기(New World screwworm, NWS) 인체감염 환자 1명 발생 보고됨(8.25.), 해당 환자는 메릴랜드 주 거주자로 최근 엘살바도르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美CDC는 메릴랜드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시행함¹⁾²⁾
 - 지난 10여년('14년~) 동안 미국에서 보고된 NWS 인체감염환자는 3명으로 모두 유입사례임³⁾
 - * ('14년) 도미니카공화국 여행/26세 여성, ('23년)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여행/62세 남성, ('24년) 도미니카공화국 여행/남성
- 美농무부(USDA)는 환자가 보고된 지역에서 가축을 대상으로 반경 20마일(약 32km) 이내 NWS에 대한 표적 감시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모든 포획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남. '17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가축에서 NWS가 마지막으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축이나 기타 동물에서 NWS가 검출되지 않음¹⁾⁴⁾
- 한편, 현재 중미지역에서는 소를 포함한 가축을 감염시키는 NWS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⁴⁾, '25년 6월 美농무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NWS가 북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NWS 탐지, 방제 및 퇴치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⁵⁾
 - * 불임파리 방사 확대, 국경 및 국내 탐지 강화, 수입·이동 규제 강화, 연구·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 확대
- NWS는 '23년 파나마에서 급증하여 유행선언('23.7.3.) 이후 지난 2년간 파나마 북부 전역으로 확산되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멕시코까지 발생 보고됨⁶⁾⁷⁾
 - ※ 중미지역 NWS 감염 총 49,578건 발생('23.7.3.~'25.7.12.): 소 34,291(85%), 개 2,260(6%), 돼지 1,374(3%), 말 1,032(3%), 양 782(2%), 염소 179마리, 사람 161명
- 멕시코에서는 '24년 11월 남부지역에서 NWS 첫 발생 보고되었으며, 이후 북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美농무부는 가축(소, 말, 들소 등)의 수입을 중단 조치함('25.5.11.)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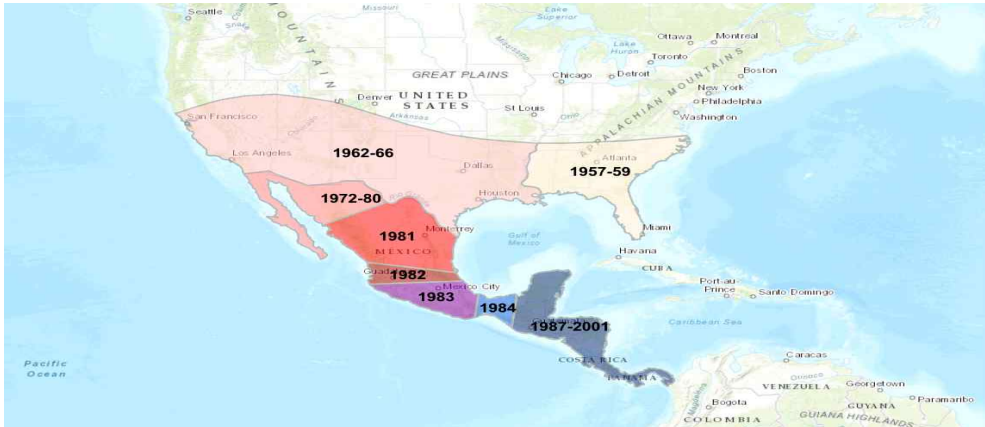
중미지역 최근 가축 신세계나사구더기증 발생 현황³⁾⁶⁾⁷⁾

상황 평가

- 美 보건부는 이번 NWS 인체감염 환자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고 평가하였으나 미국에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강력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을 발표
- 국내에서는 NWS 발생 및 유입사례 보고는 없으나 중남미지역을 여행할 경우 예방수칙(곤충 기피제 및 살충제 사용, 긴옷·양말 착용 등)을 준수할 것을 권고

- 美 보건부는 이번 NWS 인체감염 환자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은 낮다고 평가하였으나, 해외 여행과 관련된 NWS 유입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 내 NWS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미국에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부처(美농무부, 美CDC, FDA등)가 협력하여 강력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을 발표함¹⁾
- 국내에서는 NWS 감염 환자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보고 없음. 중남미 지역(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마 등)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⁹⁾¹⁰⁾
 - NWS 풍토병 지역에서 가축이 있는 곳 방문 자제, 방충망 있는 실내에서 취침, 혈령한 긴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 곤충에 물릴 수 있는 부위 최소화, 곤충 기피제 및 살충제(페르메트린 0.5% 함유) 사용, 개방된 상처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덮어두기

질병개요	신세계나사구더기증	〈New World screwworm〉 ⁹⁾¹⁰⁾
정의	· 신세계나사파리(<i>Cochliomyia hominivorax</i>)의 유충에 의한 감염성 구더기증(Myiasis) - 파리의 유충(구더기)이 온혈 동물의 살아있는 조직을 먹으면서 감염 발생(인체감염은 드뭄)	
병인체	· 파리목(Diptera)에 속하는 칼리포리데(Calliphoridae)과 코클리오미아(Cochliomyia)속 <i>Cochliomyia hominivorax</i>	
감염진행 경로	<p>· 유충-번데기-성충 과정을 거침(약 21일 주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세계나사파리는 개방된 상처 또는 점막에 알을 낳음(한번에 200~300개, 10~30일의 수명 동안 최대 3,000개) ② 몇 시간 내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상처 속으로 파고들면서 조직을 섭취하고, 악화된 상처는 더 많은 파리가 모여들어 알을 낳음 ③ 유충은 약 1주일 동안 먹이를 먹고 성장이 끝나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번데기가 됨 ④ 최소 7일 경과 후 성충 파리가 나옴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피부 상처나 염증, 개방된 상처에서 출혈, 분비물, 악취 등 - 때때로 2차 세균감염으로 발열, 오한 ※ 유충이 피하 조직에 머물지 않고 체내 조직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손상 및 감염이 더 심각할 수 있음
진단	· 조직에서 파리 유충을 발견하여 속 또는 종을 식별, 특정 형태학적 구조 비교
치료	· 감염된 조직에서 유충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의심되는 NWS 유충은 70% 에탄올이 담긴 누출 방지 용기에 담아 사멸시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대 지역을 방문하거나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곤충 물림 예방 - NWS 풍토병이 만연한 지역에서 가족 주변이나 가족이 있는 곳 방문 자제 - 헐렁한 긴팔 셔츠와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 물릴 수 있는 부위 최소화 - 곤충 기피제 사용, 방충망 있는 실내에서 취침 - 의류와 장비에 페르메트린(permethrin) 0.5%가 함유된 살충제 사용 - 개방된 상처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덮어둠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WS는 남미,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열대 및 아열대 지역 풍토병 · 1960년대 미국, 1970년대 멕시코, 1980년~2000년대 초 중미에서 불임충 방사법(SIT)*으로 퇴치하였으나, '23년 파나마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음 <p>* 불임충 방사법(Sterile Insect technique, SIT): 불임화된 수컷을 방출하여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법</p> <p>**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멕시코</p>  <p>1960~2000년대 초 신세계나사구더기(NWS) 퇴치의 역사⁷⁾</p>

1) HHS and USDA Confirm Singular Traveler-Associated New World Screwworm Case; Precautionary and Proactive Surveillance Ongoing (美보건부, '25.8.25.)

2) Maryland reports first New World screwworm infection in humans in 50 years (CIDRAP, '25.8.26.)

3) Resurgence of New World Screwworm in the Americas: What Healthcare Providers Need to Know (美CDC, '24.10.17.)

4) HHS details New World screwworm response after human case (CIDRAP, '25.8.28.)

5) Secretary Rollins Announces Bold Plan to Combat New World Screwworm's Northward Spread (美농무부, '25.6.18.)

6) New World Screwworm Outbreak in Central America and Mexico(美농무부, '25.8.28.)

7) 파나마-미국 나사벌레 박멸 및 예방 위원회(COPEG)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peg.org' (검색일 '25.9.3.)

8) Secretary Rollins Suspends Live Animal Imports Through Ports of Entry Along Southern Border, Effective Immediately (美농무부, '25.5.11)

9) About New World Screwworm, Clinical Overview of New World Screwworm (美CDC, 8.27.)

10) Myiasis- DPDx (美CDC, '24.6.6.)

2. 엠폭스, 여러 국가 Mpox in Multi-country

발생 상황

- '25년 7월 전 세계 47개국에서 엠폭스 확진자 3,724명이 보고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25년 5월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이지만 서태평양지역에서는 7월 필리핀, 중국의 확진자 수 증가로 전월 대비 160% 증가함(297명)
- 세네갈의 첫 번째 엠폭스 발생이 보고됐고(8.23. 유입사례), 튀르키예에서도 Clade 1b 엠폭스 첫 번째 유입사례(3명)를 보고함

■ 전 세계 엠폭스 발생 현황¹⁾

- '25년 7월 전 세계 47개국에서 엠폭스 확진자 3,724명(사망 30명, 치명률 0.8%) 발생이 보고됨.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되었으며 '25년 5월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서태평양 지역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7월 확진자 수가 전월 대비 각각 160%, 5.9% 증가함.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발생은 전월 대비 각각 31%, 31%, 28% 감소하였으며, 동지중해 지역에서는 7월 발생 보고가 없었음

※ '25년(1.1.~7.31.) 누적 전 세계 84개국에서 엠폭스 확진자 34,386명, 사망 138명 보고(치명률 0.4%)

-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 중국의 7월 확진자 증가로 월간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음. 필리핀은 6월에 확진자가 없었으나 7월에 126명을 보고하였고, 중국은 6월 확진자 108명에서 7월에 152명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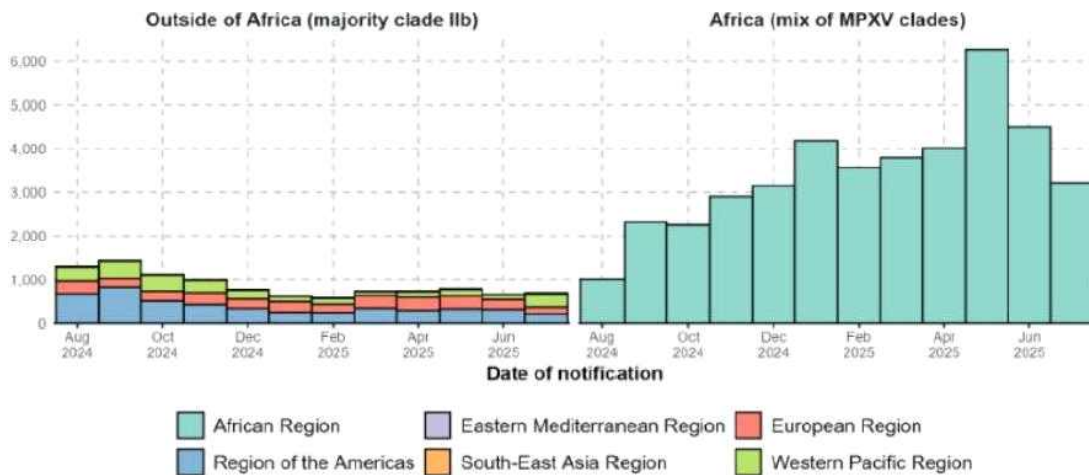


그림 2-1. 최근 1년('24.8.1.~'25.7.31.) WHO 지역별, 월별 엠폭스 확진자 수 (WHO, 7.31. 기준)

■ 아프리카 지역 엠폭스 발생 현황

- '25년(~8.17.)에 아프리카 지역 23개국에서 엠폭스 확진자 31,316명 보고되었으며 이 중 136명이 사망함(치명률 0.4%), 최근 6주 아프리카 지역의 21개국에서 엠폭스 유행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 우간다의 발생 감소로 최근 몇 주간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 엠폭스 발생 아형: 동부 아프리카(Clade 1b), 서부 아프리카(Clade 2b), 중부 아프리카(Clade 1a, Clade 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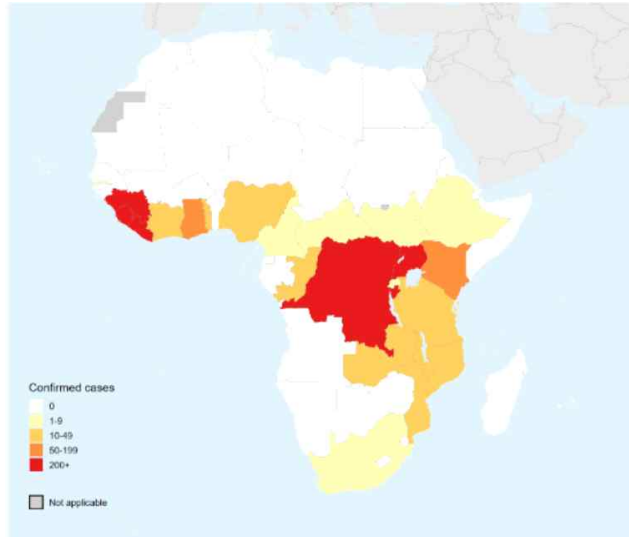


그림 2-2. 최근 6주(25.7.13.~ 8.17.) 아프리카 지역 엠폙스 발생 분포 (WHO, 8.17. 기준)

케냐

- '24년 7월 발생 이후 '25년 8월 17일까지 엠폙스 확진자 370명, 사망 6명(치명률 1.6%)을 보고함. 케냐에서는 Clade 1b만 확인되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적지만 지역사회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25년 보고된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누적 사례는 전국 47개 카운티 중 21개(45%)에서 보고되었으며, '25년 초에 주요 교통로(A104)를 따라 위치한 12개 카운티에서 증가함. 대부분 사례가 몸바사 카운티에서 보고되었으며, 최근 6주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몸바사 카운티에서 보고됨. 대부분 젊은 성인에서 보고되었고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30~39대(28.7%)이고 다음은 20~29대(26.8%)임
- 엠폙스 확산의 주요 전파경로는 성 접촉이며, 특히 동아프리카 주요 국경 고속도로를 따라 위치한 트럭 운전자, 성 노동자, 무역업자가 모이는 중심지에서 전파되고 있음. 사망자 6명 중 5명이 HIV 감염자로, HIV 감염자에서 예후가 좋지 않을 위험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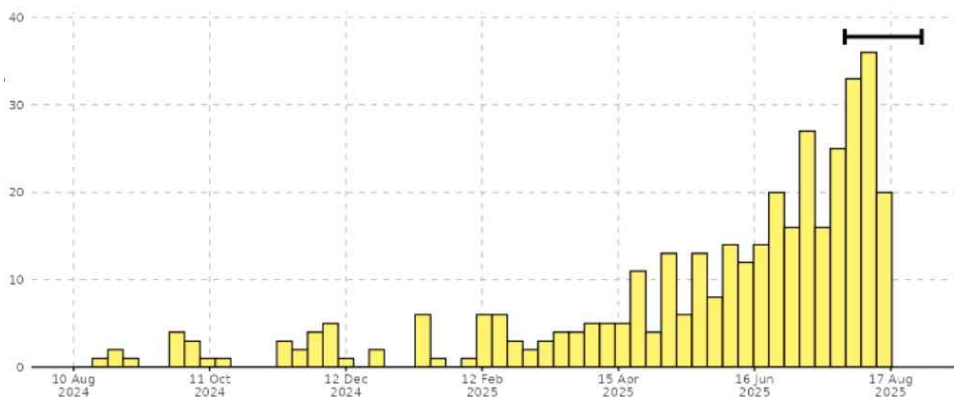


그림 2-3. 최근 12개월(24.8.10.~25.7.17.) 케냐 주간 엠폙스 확진자 발생 현황 (WHO, 7.17. 기준)

세네갈

- 세네갈에서 자국 내 엠폙스 발생을 최초 보고함(8.23.). 8월 19일 세네갈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8.21.) 후 양성 확인(8.22)하였으며 현재 격리 중으로 안정적인 상태임

콩고민주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은 자국 내 첫 Clade 2b 사례 2명을 보고함. 첫 번째 환자는 최근 코트디부아르에서 입국한 성인 남성으로, 바이러스 분석 결과 코트디부아르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엠폭스 사례의 염기서열과 관련이 확인됨. 접촉자 중 한 명에서 확진자가 발생(지역 감염)했으며, 접촉자 25명 중 23명에게 백신(MVA-BN) 접종 및 전체 접촉자 모니터링 결과 추가 확진자는 보고되지 않음

■ Clade 1b 엠폭스 유입 사례

- '25년 8월 중국(1명), 독일(1명), 튀르키예(3명), 영국(1명)에서 Clade 1b 엠폭스 유입 사례를 WHO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해외 여행력이 있는 성인 남성임
- 튀르키예에서 엠폭스 Clade 1b 사례를 최초 보고하였으며, 1명은 7월 말에 진단되었으나 2명은 '25년 초 확인되고 후향적으로 보고됨. 7월 사례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여행력이 있으며 이전 발생 2명은 우간다 여행력 확인되어 우간다 보건당국은 사례 조사, 격리, 대응조치를 시행함
- 독일 및 영국 Clade 1b 유입 사례의 최근 여행 국가는 각각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임

상황 평가

- WHO는 엠폭스 지역사회 전파 지속 위험을 언급하고, 엠폭스의 국제적 확산 방지 및 감소 위해 엠폭스 상시 권고사항을 12개월 연장함(~'26.8.20.)
- 엠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
- WHO는 엠폭스 발생이 신속히 통제되지 않고 사람 간 전파가 차단되지 않을 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지속될 것을 언급하였으며, 엠폭스의 국제적 확산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엠폭스 상시 권고사항*을 12개월 연장함(~'26.8.20.)¹⁾
 - * WHO 전략 및 기술 지침을 기반으로 국가별 엠폭스 계획 수립 및 이행, 사람 간 전파 차단 위한 조치 권고, 발생 감시·위험 평가 강화를 위한 실험실 기반 감시 및 진단 역량 구축 및 유지, 위기 소통 및 참여 역량 구축하여 지역사회 보호 강화 등
 - ※ WHO는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유지 중('24.8.14.~)
- WHO와 아프리카CDC는 엠폭스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OARN)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케냐에 전문가 15명(데이터 분석, 역학, 감시, 실험실, 사례 관리, 감염예방·관리, 위기소통)을 파견함(8.20.). 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 국가에 예방접종(MVA-BN)을 시행함
- 국내에서 2형 엠폭스 환자는 '24년(국내발생 15명, 해외유입 2명), '25년(국내발생 7명, 해외유입 1명) 보고되었으며('25.9.1. 기준), 1형 엠폭스의 국내 발생 및 해외유입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²⁾.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속 유행 중으로 엠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야생 동물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권고함³⁾

1) Mpox: Multi-country External Situation Report no.57 (WHO, '25.8.28.)

2)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24.9.1.)

3) 보도참고자료 | 엠폭스 국내 발생은 안정적,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비·대응 강화 (질병관리청, '24.8.26.)

3. 동부말뇌염 인체감염, 캐나다 Eastern Equine Encephalitis (EEE) human infection in Canada

발생 상황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해밀턴 지역에서 '25년 첫 동부말뇌염(EEE) 인체감염 사례 1명 발생 보고됨. 해외 여행력이 없어서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환자 발생지역에서 말 EEE 감염도 확인되어 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징후가 있음¹⁾²⁾

-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해밀턴 지역에서 '25년 첫 동부말뇌염*(Eastern Equine Encephalitis, EEE)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 해외 여행력이 없는 성인 남성으로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추정함(8.28.)

* 동부말뇌염(Eastern Equine Encephalitis, EEE)은 야생 조류를 자연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가(토타바이러스과(Togaviridae) 알파 바이러스속(Alphavirus)에 속하는 동부말뇌염 바이러스) 감염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에 전파되어 발생함. 인체감염은 드물지만, 치명률이 높고(약 30% 내외), 신경학적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음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의 '동부말뇌염' 질병 개요 참고 바람)

- 환자 발생지역에서 말(馬)의 EEE 감염 사례 2건이 확인되어 보건당국은 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징후가 있음을 확인함
- 캐나다에서 EEE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는 감염질환으로 이번 사례 전까지 총 4명이 보고되어 작년에는 온타리오 오타와 지역에서 발생함³⁾. 미국의 경우 올해 발생 보고는 아직 없으나, '03~'24년까지 총 215명 발생 보고됨(84명 사망). 주로 매사추세츠 주, 플로리다 주, 미시간 주, 뉴햄프셔 주 등을 포함한 동남부 지역에서 다수 보고됨⁴⁾⁵⁾

상황 평가

- 캐나다 보건당국은 EEE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 긴 옷 착용, 거주지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함
- 국내 동부말뇌염 발생 보고는 없으나, 국외 유행 지역 방문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상기 예방수칙 준수 필요

- 캐나다 지역 보건당국은 EEE 감염 위험이 낮지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옷을 입으며 거주지 주변의 고인 물을 제거하는 등 모기매개 감염병 기본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또한 된서리로 인해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면 감염 위험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함
- EEE 환자가 발생한 해밀턴 지역은 도심 빗물받이(맨홀) 등에 대한 유충 구제 처리와 같은 매개체 방제를 진행 중이며, 상시 위험평가 및 감시를 진행하여 대비하고 있다고 밝힘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동부말뇌염 환자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으나, 국외 유행 지역 방문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사용, 긴 옷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질병개요	동부말뇌염 〈Eastern Equine Encephalitis, EEE〉 ⁶⁾
정의	· 동부말뇌염(Eastern Equine Encephalitis) 바이러스에 의한 모기매개 감염질환
병원체	· 토가바이러스과(Togaviridae) 알파바이러스속(Alphavirus)에 속하는 양(+) ⁺ 가닥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
병원소	· <i>Culiseta melanura</i> 모기와 야생 조류 사이의 순환으로 유지됨(조류가 주요 병원소). 사람과 말은 ‘사점 숙주(dead-end hosts)’로, 감염되더라도 모기에 다시 전파 시키지 못함. 사람 감염은 조류와 포유류 모두를 무는 ‘교량(bridge) 벡터(주로 <i>Aedes</i> , <i>Coquillettia</i> , <i>Culex</i> 속 일부 종)’를 통해 발생
잠복기	· 4~10일(면역저하자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감염경로	· 주 감염경로는 감염 모기의 흡혈. 드물게 장기이식으로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되었고, 수혈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으며, 사람·말 사이의 일반적인 사람 간 전파는 없음
임상증상 및 경과	· 대부분 무증상이나, 일부는 발열성 전신증상(발열,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을 보이며, 수막염/뇌염으로 진행. 신경 침범 시 두통, 구토·설사, 경련, 의식변화, 초조/행동 변화, 졸림/혼수 등이 나타남 · 영유아는 발병 초기에 신경 증상이 흔하고, 성인에서는 전신증상 수일 후 뇌염 발생 가능. 회복하더라도 다수에서 지적장애, 성격 변화, 경련, 마비, 뇌신경 기능장애 등 장기 신경후유증이 남을 수 있음
치명률	· 중증 EEE 환자의 사망률은 약 30%로 매우 높음 - 사망은 보통 증상발현 후 2~10일 사이이며, 생존자의 절반 이상에서 지속적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음
진단	· 임상(발열·신경 증상)과 노출력(유행지역 거주/여행, 모기 노출) 및 실험실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함 - 주요 검사: EEEV-특이 IgM(혈청 또는 CSF) 검출이 1차 방법이며, 중화항체검사로 확진 권고함. 면역저하자에서는 RT-PCR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치료	· 특별한 항바이러스제 없음 - 중증 뇌염 환자에서는 두개골 내압 상승, 경련, 기도보호 불능 발생을 면밀히 관찰·관리하고, 심한 수막염 증상이 있으면 진통, 항구토, 수액요법 등 대증치료 시행
예방	· 인체감염에 대한 백신은 없고, 일반적 감염예방 수칙 준수, 위험지역 방문 시 모기물림에 주의 - 기피제 사용, 긴 옷 착용, 실내·외 모기 서식지 관리로 모기 노출을 줄임. EEE 확진자의 경우, 120일(4개월) 동안 헌혈 금지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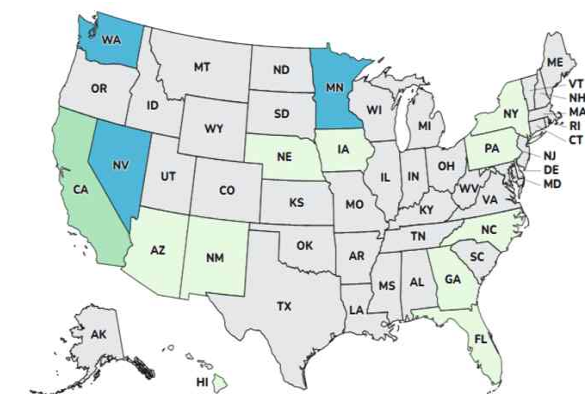
1)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reported in Hamilton resident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해밀턴시 보건부, '25.8.29.)
 2) Public health confirms case of equine encephalitis virus in Hamilton man (캐나다 언론, CBC 뉴스, '25.8.31.)
 3) First human case of eastern equine encephalitis (EEE) in 2025 reported in Canada in a patient in Hamilton (BEACONBIO, '25.9.1.)
 4) Current Year Data (2025) for Eastern Equine Encephalitis (美CDC, '25.8.26.)
 5) Historic Data (2003-2025) for Eastern Equine Encephalitis (美CDC, '25.6.3.)
 6) About Eastern Equine Encephalitis (美CDC, '25.8.26.)

4. 살모넬라균 감염증, 미국 Salmonellosis in the USA

발생 상황

미국 14개 주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자 95명이 보고되었으며(8.27. 기준), 이 중 18명은 입원치료를 받음(사망자 없음).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고하였으며, 전장 유전체 분석결과 공통 감염원(계란)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됨. 추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통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을 리콜 조치함

- '25년 8월 27일 기준 미국 14개 주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자 총 95명이 보고됨.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 중 18명이 입원치료를 받음.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이외에도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네바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주에서도 확진자가 보고됨⁽¹⁾⁽²⁾⁽³⁾
 - 증상 시작 시점은 '25년 1월 7일 ~ 7월 26일이며, 연령 범위는 1세에서 91세이고, 여성이 55%, 남성은 45%를 차지함. 조사가 완료된 환자 36명 중 33명은 발병 전 계란이나 계란이 담긴 접시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함. 또한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환자에서 분리된 균이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공통 감염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시사함. 그러나 환자 분리주와 의심되는 식품 공급원(계란)과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분석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²⁾⁽³⁾
 - FDA는 해당 기간 동안 환자가 섭취한 계란이나 구매 장소를 추적 조사하여 공통 공급업체와 해당 제품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판매되었음을 확인함. 공급되지 않은 주에서 발생한 환자가 여행자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보고되지 않음. 한편, 해당 공급업체는 8월 27일 'Nagatoshi Produce', 'Misuho'. 'Nijiya Markets'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리콜을 시행함⁽⁴⁾



환자수

- 1 to 2
- 3 to 4
- 5 to 73



그림 4-1,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 보고 지역(좌) 및 일부 원인식품(우) (美CDC/FDA, '25.8.28.)

상황 평가

- 美CDC와 FDA는 해당 계란을 섭취하지 말 것과 설사 및 발열, 탈수 등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함
 - 국내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수는 최근 4주 '24년 대비 지속 증가하고 있음. 살모넬라균은 보통 계란 껍질 표면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계란을 구입하여 냉장보관하고,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함
 - 美CDC와 FDA는 다음과 같이 권고함: ①해당 계란을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 ②해당 계란에 닿았을 수 있는 물건이나 표면을 뜨거운 비눗물이나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여 씻을 것, ③설사와 102°F(약38.9°C)이상의 발열, 3일 이상 지속되는 설사가 호전되지 않을 시, 혈변, 탈수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³⁾⁴⁾
 - 국내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으로 살모넬라균 감염증 신고수가 최근 4주 '24년 대비 지속 증가하고 있음. 살모넬라균은 보통 계란 껍질 표면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계란을 구입하여 냉장보관하고, 껍질을 깬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가열·조리하고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함⁵⁾⁶⁾
- * ('24년) (31주) 124명 → (32주) 148명 → (33주) 123명 → (34주) 163명
('25년) (31주: 7.27.~ 8.2.) 135명 → (32주) 159명 → (33주) 143명 → (34주: 8.17.~8.23.) 180명

1) US CDC, FDA investigate multistate Salmonella outbreak affecting 95 people across 14 states; suspected link to eggs (BEACON, '25.8.30.)

2) Investigation Update: Salmonella Outbreak August 2025 (美CDC, '25.8.28.)

3) *Salmonella* Outbreak Linked to Eggs (美CDC, '25.8.28.)

4) Outbreak Investigation of Salmonella: Eggs (August 2025) (美FDA, '25.8.28.)

5) 보도자료 | 여름철 장관감염증 예방의 첫걸음, 제대로 씻고 제대로 익히기 (질병관리청, '25.7.9.)

6) 감염병포털 | 감염병통계 표본신고감염병 장관감염증 (질병관리청, '25.9.2.)

참고사항

전 세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25.9.3.기준)

구분	발생 상황
주간 신규 발생 (25.8.28.~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발생 없음
'25년 발생 (9.3.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국에서 28명 발생(사망 11명) - 캄보디아(15명, 사망 8명), 미국(4명), 방글라데시(3명), 인도(2명, 사망), 중국(1명), 영국(1명), 베트남(1명), 멕시코(1명, 사망)
전 세계 누적 발생 (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국에서 989명 발생(사망 474명, CFR 48%) - 미국(71명, 사망 1명), 캄보디아(87명, 사망 50명), 중국(57명, 사망 32명), 방글라데시(11명, 사망 1명) 등
주요기관 위험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7.28.) 및 ECDC(7.4.)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미CDC(2.28.)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구(개인 및 집단)의 건강 위험은 낮으나,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중간-높음”으로 평가함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대륙별 감염병 등 건강정보 소책자)

1. 내용 및 구성

- ① 대륙별 필수·권장 예방접종 정보, ② 주의 감염병별 원인·증상과 예방법, ③ 현지 주의사항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④ 현지 대사관 연락처 등 **여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유의 사항**
- 총 5종(아프리카/중남미/중동·북아프리카/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

2.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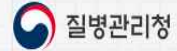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혹은 QR코드 활용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아프리카/중남미 2종에 한함)
 -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누리집(nqs.kdca.go.kr)에서 기관 목록 확인

《해외여행객 대상 대륙별 건강정보 소책자 목록》

 <p>건강하고 안전한 아프리카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건강하고 안전한 중남미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건강하고 안전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p>건강하고 안전한 동남아시아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건강하고 안전한 서남아시아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p>	<p>〈소책자 pdf자료 내려받기〉 검색창에 '건강정보 소책자' 검색</p> 
동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목록〉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4.8.19.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3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 4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2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4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해외여행 시에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덴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주의하세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 1** 여행 전 국가별 감염병 발생현황 및 주의사항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2** 모기 퇴치용품(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등) 사용하고, 풀숲 및 산속 등 모기 많은 곳 방문하지 않기
- 3** 귀국 뒤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 알리고 치료받기
*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 4** 남녀모두 6개월간 성접촉 피하기
해외여행 후 4주간 헌혈이 금지되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는 귀국 후 6개월간 임신 연기 및 성접촉 피하기

말라리아 예방수칙

말라리아 예방수칙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사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활동 자제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야외활동 후 샤워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 감염병소식 >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